

# 더 낮게... 더 가깝게...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 주고파”

사립 대안 교육기관 선너머학교에  
1000만원 상당 교육 기자재 지원  
조봉의 교장 “청소년 위해 힘써줘 감사”

##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 가질 계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총재 박병익·사진)는 지난 9일 오전 라이온스 전북지구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제1지역 이용선 부총재와 제2지역 이석재 부총재, 제3지역 안준수 부총재, 제4지역 이승훈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 대안 교육기관인 (사)생명평화마중물 선너머학교(교장 조봉의)에 1,0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이날 이승훈 전주지역 부총재는 “생명평화마중물 선너머학교의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익 총재는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의 교장은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가 위기에 청소년을 위해 힘 써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는 지난 9일 오전 라이온스 전북지구 회의실에서 사립 대안 교육기관인 (사)생명평화마중물 선너머학교에 1,0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사진은 박병익 총재와 조봉의 선너머학교 교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비전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지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전주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  
하고 있다.

## 총재·부총재들이 걸어온 길

박병익 총재는 현재 (사)전북내사랑꿈나무 이사장,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 육상연맹 이사, 전북라이온스 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전북육상연맹회 회장,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역임했다.

또한, 박 총재는 철인3종경기(올림픽코스)완주, 마라톤 풀코스(42.195Km) 51회를 완주하는 등 스포츠맨으로 지난 1996년 97무주·전주동계U대회 성공염원국토종단을 실시했으며 2010년에는 전북혁신도시내 L·H유치 영원을 위한 범도민 달리기를 통해 부당성을 전국에 알리는 등 애행사람을 품소 실천한 봉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선 전주 제1지역 부총재는 전주제일MF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지대위원장을 거쳐 현재 전주제1지역 부총재를 맡고 있으며 주식회사 한라종합공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석재 전주 제2지역 부총재는 전주청지MF 라이온스클럽 제19대 회장과 지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엠공뮤지컬 대표를 맡고 있다.

안준수 전주 제3지역 부총재는 전주한빛MF 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지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신정주류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승훈 전주 제4지역 부총재는

## 올해 추진 사업 방향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는 도내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클럽 활성화와 노년층을 위한 최대 노력과 지원, 우선클럽 활성화 노력, 지구 연수위원회 활성화 및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여성라이온스 지도자 양성, 지역 차원의 봉사사업 적극지원 등이 있다.

주력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지역 환경 개선, 의료봉사 사업, 기부금 사업의 확대, 어르신 폐지수거 순수레 지원 사업, 전북 국제 봉사단체 결성 등으로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지구위원의 리더십 역량강화와 클럽 4역의 리더십 역량강화, 여성 임원연수를 통한 여성 라이온의 자긍심 고취, 신입회원의 라이온 기본교육 강화 등의 연수원 활성화와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우선클럽 활성화와 최대 지원 등의 회원 증강 및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라이온스 이미지 강화를 위해 각종 미디어를 통한 참 봉사 활동의 적극 홍보와 미약되치 및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인다.

이밖에, 국제재단 LCF기금 모금의 활성화,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 전북 청소년 육성 사업도 펼친다.

/김재훈 기자



지난달 4일 오전 국제라이온스협회356-C 지구 본부 회의실에서 박병익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재 캠페인 릴레이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북지구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소의계층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 전주천을 살리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